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불멸의 전승업적을 이룩하시여 우리 나라를 영웅의 나라로 빛내이신 강철의 령장

김 춘 근

우리 인민의 조국해방전쟁은 청소한 공화국이 제국주의연합세력의 강도적인 침략전쟁을 물리치고 세계사적기적을 창조한 전쟁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심으로써 우리 나라를 영웅의 나라로 빛내이신 강철의 령장이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이 위대한 영웅이면 당도 영웅의 당으로 되고 나라도 영웅의 나라로 되며 민족도 영웅의 민족으로 되고 인민도 영웅의 인민으로 됩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1권 130페이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미제와 그 추종국가들의 무력침략을 주체의 전법으로 타승하신 강철의 령장이시다.

해방된 조선은 미제의 민족분렬책동에 의하여 북과 남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외세를 배격하고 평화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느냐 아니면 외세를 등에 업고 분렬과 전쟁의 길로 나가느냐 하는 갈림길에 직면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을 기본로선으로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시였다.

그러나 미제와 리승만피뢰도당은 전조선을 식민지로 만드는데 광분하였다.

미제는 남조선을 군사기지로 만들고 공화국북반부를 무력으로 강점할뿐아니라 나아가서는 아시아대륙을 침략하기 위한 책동을 광란적으로 벌리였다. 미제는 1948년까지 미국제무장을 갖춘 남조선피뢰군을 조작한 다음 1950년 1월에는 남조선에 미군사교문단을 설치할데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피뢰군에 대한 통수권을 장악하였으며 방대한 예비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남조선의 모든 청장년들을 반군사조직인 《호국단》에 끌어넣고 군사훈련을 강요하였다.

이와 함께 미제와 리승만피뢰도당은 《후방안정》을 구실로 애국적민주력량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소동을 미친듯이 벌리였고 피뢰군안에서도 수많은 장병들에게 《빨갱이》 딱지를 붙여 그들을 교살하였다. 미제는 일본을 수리기지, 보급기지, 공격기지로 전변시키는 한편 리승만피뢰도당을 부추겨 피뢰군을 38°선 이북에 대한 무력침공에 빈번히 내몰아 실전능력을 갖추게 한 다음 1950년 6월 25일 무모한 전쟁을 도발하였다.

미제와 그 주구들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연합세력의 침략으로부터 청소한 공화국을 지키고 민족해방을 실현하는 참으로 힘겨운 조국수호전이었다. 세계는 《전승》을 자랑하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과 청소한 우리 공화국과의 전쟁에서의 승패를 시작부터 공인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억센 담력과 드센 배짱, 천변만화의 주체전법으로 미제와 그 추종세력을 타승하심으로써 세계전쟁사에서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기적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미제가 남조선피뢰들을 내세워 전쟁을 도발하자 인민군대에 즉시 결정적인 반공격으로 무력침범자들을 소탕할데 대한 명령을 내리시였다. 이것은 기성의 군사상식으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정치사상적으로 우월한 우리 인민군대가 돈과 강압에 끌려나온 피뢰군이나 침략군대를 얼마든지 타

승할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과 주체전법으로 즉시적인 반공격을 개시하도록 하시였다.

이전의 전쟁경험을 보면 로씨야는 1812년 나뭇레옹이 침략하였을 때에 모스크바를 내주면서까지 시간을 얻어 력량을 수습하고 반공격으로 이전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때 소련은 20년나마 군건설을 하고도 히틀러파쑈군대의 《전격전》에 돌파당하여 많은 땅을 내주었다가 반공격으로 이행하였다. 중국도 건국이전에 항일전쟁, 국내전쟁을 하였지만 건국후에는 독자적으로 큰 전쟁을 치른 일은 거의 없었다. 우리 나라처럼 작고 분열되고 식민지경제적편파성을 극복하지 못한 나라가 방대한 적들의 침략전쟁을 즉시적인 반공격으로 좌절시켰다는 자체가 세계전쟁사의 기적이 아닐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군부대들이 반공격으로 넘어가 적들의 불의적인 침략을 좌절시키도록 하시는 한편 연속적인 타격을 전투진행의 기본방식으로 내세우시고 적을 밀고만 나갈것이 아니라 철저히 소멸하기 위한 다양한 전법을 제시하시였으며 인민군부대들을 전투승리로 명활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천재적지략과 독창적인 전법에 의하여 인민군부대들은 전쟁이 개시된지 3일만에 서울을 해방하고 연속타격전으로 인천, 수원을 해방하였다. 조선인민군 제2어뢰정대 해병들은 4척의 어뢰정으로 《움직이는 섬》이라고 자랑하던 미제의 중순양함 《볼티모》호를 격침시키고 경순양함을 격파하여 세계해전사에 특기할 빛나는 위훈도 세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명활무쌍한 주체전법으로 싸우는 인민군부대들은 괴뢰군의 《불퇴의 선》들을 연속 돌파하고 《상승사단》이라고 뿔내던 미 제24사단을 괴멸시켰으며 대전을 해방하는 등 전쟁이 개시된지 불과 한달반사이에 남반부지역의 90%이상과 인구의 92%이상을 해방하는 기적같은 전과를 거두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쟁 전기간 조성된 군사정치정세를 천리혜안의 예지와 과학적통찰력으로 분석평가하시고 전쟁승리를 위한 전략적단계들과 주타격방향을 바로 정하고 적들과의 전투를 명활하게 벌리도록 하시여 전쟁국면을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환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새로운 후비부대들을 편성하여 강력한 반공격집단을 형성하며 인민군주력부대들이 반공격으로 넘어갈 때 제2전선부대들이 맹렬한 배후타격으로 적들을 모조리 소멸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여 적들을 수세에 몰아넣도록 하시였다. 그런가 하면 적의 유생력량을 대량적으로 섬멸하면서 적들을 38°선 이남으로 몰아내고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쟁취할 준비를 갖추데 대한 전략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미제의 대규모적인 무력증강책동에 의하여 조국해방전쟁이 장기성을 띠게 되었을 때에는 완강한 진지방어전을 벌릴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구현으로서 1211고지를 비롯한 조국의 고지들을 미제침략군의 함정골로 만들도록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작전적구상을 높이 받들고 우리 인민군대는 미제를 비롯한 추종국가군대들과 괴뢰군을 여지없이 격멸소탕하였다.

참으로 천변만화의 지략으로 백전백승을 펼치시는 강철의 령장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우리 인민군대는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을 물리칠수 있었고 미제의 항복서를 받아냄으로써 세계전쟁사에 전무후무한 영웅적인 전승위훈을 창조할수 있었다.

이 과정에 자기 수령, 자기 제도만을 굳게 믿고 승리한 조국의 래일을 내다본 억센 신념의 소유자들, 전승의 길에 불멸의 위훈을 아로새긴 수많은 유명무명의 영웅들이 배출되었다. 조국해방전쟁에서 배출된 수많은 영웅들은 우리 인민의 자랑이며 우리 혁명의 귀중한 밑천이다. 항일혁명투사영웅들과 공화국 2중영웅들을 비롯한 공화국 및 로력영웅들이 전쟁기간에만도 600여명이 배출되었다는 사실만 놓고보더라도 세계가 우리 군대와 인민을 영웅적군대, 영웅적인민이라고 격찬하는 이유를 잘 알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후방을 튼튼히 다져 전승의 믿음직한 담보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을 영웅의 나라로 빛내이신 강철의 령장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미제의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모든 력량을 전쟁승리에로 총동원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며 국토완정을 위한 조국해방전쟁에 인민군장병들뿐아니라 로동자, 농민, 사무원들과 청년학생들모두가 떨쳐나설데 대하여 호소하시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미제가 제공권과 제해권을 거의 장악하고있는데다가 크지 않은 땅에서 전쟁을 하다보니 전연전방의 폭이 넓지 않고 작전중심이 깊지 못하여 처음부터 립체전으로 대처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것이야말로 전체 군대와 인민이 총동원되어 결사적으로 싸울것을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천리혜안의 예지와 비상한 통찰력으로 전시조건에 맞게 나라의 정치적지반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조국수호의 높은 정신력을 발휘하여 난국을 타개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비상한 조직적수완과 비범한 령도로 전체 인민을 전쟁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쟁이 일어나자 전체 당단체들과 당원들에게 당중앙위원회 편지를 보내시여 전시환경에 맞게 당조직들의 전투력과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도록 하시였다. 이와 함께 전시조건에 맞게 당장성사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그리하여 빠른 시일안에 100만명의 당원을 키워냄으로써 전쟁의 운명을 결머질 핵심부대, 후방의 안전과 전시생산, 복구와 건설의 믿음직한 담당자를 마련하게 되었고 나라의 전반적인 정치적지반을 보다 굳건히 다지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후방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공화국정권의 귀중함과 우리 제도의 우월성으로 교양하고 적들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정신과 강의한 의지, 혁명적락관주의정신과 필승의 신념을 가지도록 교양하여 모두가 전쟁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우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무한히 고무된 우리 인민은 적강점지역에서 유격대를 조직하여 적의 집결처와 운수수단, 전투기자재들을 습격파괴하고 적들의 유생력량을 소멸하였으며 지어는 소년단원들까지 손에 무장을 들고 용감히 싸워 적들을 공포와 수세에 몰아넣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시식량증산을 위한 투쟁을 전선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조건의 하나로 보시고 한치의 땅도 묵이지 말고 농사를 지을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으며 품앗이반, 소거리반을 널리 조직하는 등 전체 인민을 식량증산에 조직동원하여 주체41(1952)년 알곡 총수확고를 전해에 비해 113%로 장성시키도록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시환경에 맞게 인민경제계획을 조절하고 기본건설을 극력 줄이며 중요공장, 기업소들을 북부지대에 소개하고 가능한 모든 공장, 기업소들을 군수공장으

로 전환시켜 군수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할데 대한 조치를 취해주심으로써 주체41(1952)년에 와서 때 보병사단의 화력이 전해에 비해 160%로 증가되었다.

우리 인민들은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전선을 지원하고 백방으로 원호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호소를 심장으로 받들고 군기기금헌납운동을 힘있게 벌렸으며 《로동자》호, 《만경봉》호, 《민청》호, 《소년》호 라는 이름을 단 비행기, 탱크, 함선들을 전선에 보내주었다. 농민들속에서도 전선원호미헌납운동을 힘있게 벌려 주체42(1953)년 4월까지 무려 3 000t의 식량을 전선에 보내주었다. 뿐만아니라 적들의 포탄과 폭탄이 우박처럼 쏟아지는 속에서도 결사의 정신으로 고지에서 싸우는 인민군군인들에게 포탄과 식량을 운반해주고 돌아오는 길에는 부상병들을 후송하였으며 군인들과 한 전호속에서 같이 싸우면서 갱도진지굴설작업도 도와주었다.

이 나날 군자리의 발명가 최성준영웅과 영웅직포공 고영숙, 조병희기관사영웅을 비롯한 후방을 튼튼히 지킨 영웅들이 많이 배출되게 되었으며 이런 영웅들이 있어 미제를 타승하고 우리 공화국을 더욱 철벽으로 지킬수 있게 되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군대와 인민의 조국수호정신이 높이 발휘되었기에 월미도의 영웅중대도 나올수 있었고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생명을 바쳐 진격로를 연 영웅들이 나올수 있었으며 우리 인민은 손으로 피대를 돌려 수류탄을 만들고 불비속을 뚫고 전시수송을 보장할수 있었다.

하기에 외국의 한 군사전문가는 《조선전쟁은 세계전쟁사에 많은 면에서 기록을 남긴 주목할만 한 전쟁이었다.》라고 하면서 《우선 근대세계력사에서 〈초대국〉의 지위를 계속 유지해오던 미국이 패전한 첫 전쟁이었다.》라고 격찬하였고 소련신문 《쁘라우다》특파기자는 조선의 승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정치철학과 세계관, 군사적능력과 인생체험이 가져온 필연적결과》라고 칭송하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가슴깊이 새기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를 높이 받들어 조국통일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할 것이다.